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여의도 한강공원 야외에서 진행
합니다:)



2024.05월

부활 제 6주일



Agape Youth Group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울 동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백처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라 라랄라라라

랄랄라 라라라라라

랄랄라 라랄라라라

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

울 동

낮은 자의 하느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느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느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

Ave Maria

Ave maria Gratia plena

Domino's tecumseh Benedictatu

1. 당신께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소서
2. 내 꿈과 희망과 나의 것은 당신 것
어머니 내어머니 당신께 바치리
3. 항상 미소 짓는 당신 모습 볼 때에
내마음은 한없이 기쁨이 넘치네

찬양

주님 우리 주여

주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x2)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제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주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령 송 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부활 제 6주일 미사



Agape Youth Group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244. 성모의 성월

후렴 : 성모성월이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 1) 가장 고운 꽃 모아 성전 꾸미오며
기쁜 노래 부르며 나를 드리오리
- 2) 오월 화창한 봄날 녹음 상쾌한데
성모 뵈옵는 기쁨 더욱 벅차오리
- 3) 들에 핀 옥잠화가 곱고 청순하나
성모 정결한 덕은 비할 데 없어라
- 4) 우리 어머니 함께 주를 사랑하니
영원하오신 천주 뵈게 하옵소서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5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26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44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45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46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47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 독서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10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15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복 음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편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남녀 수도자들과 신학생들을 굽어살피시어,
인간적, 사목적, 영성적, 공동체적 양성을 통하여
자신의 고유한 성소를 키워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며
복음의 믿음직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인류를 굽어보시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화합을 이루고
평화로우이 살아가게 하소서.

보편지향기도

3. 생명 주일을 맞아,
생명 수호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이 땅의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4.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에 함께하는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불어 넣어 주시고,
올 해는 기도의 집이 마련되도록 도와 주소서.

봉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성체성가

하나된 우리

주님 축복 청하며 하나된 우리
정의와 자비의 주 하느님
어둠은 지나고 고통 사라지네
사랑의 아버지 찬미 찬송하세

영원한 사랑의 주님 나라로
언제나 우리 인도 하시는 분
슬픔과 시련의 무거운 짐을 져도
승리는 오직 주님 것 알렐루야

파견성가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x2)

주님의 지파들 모두 다 저기로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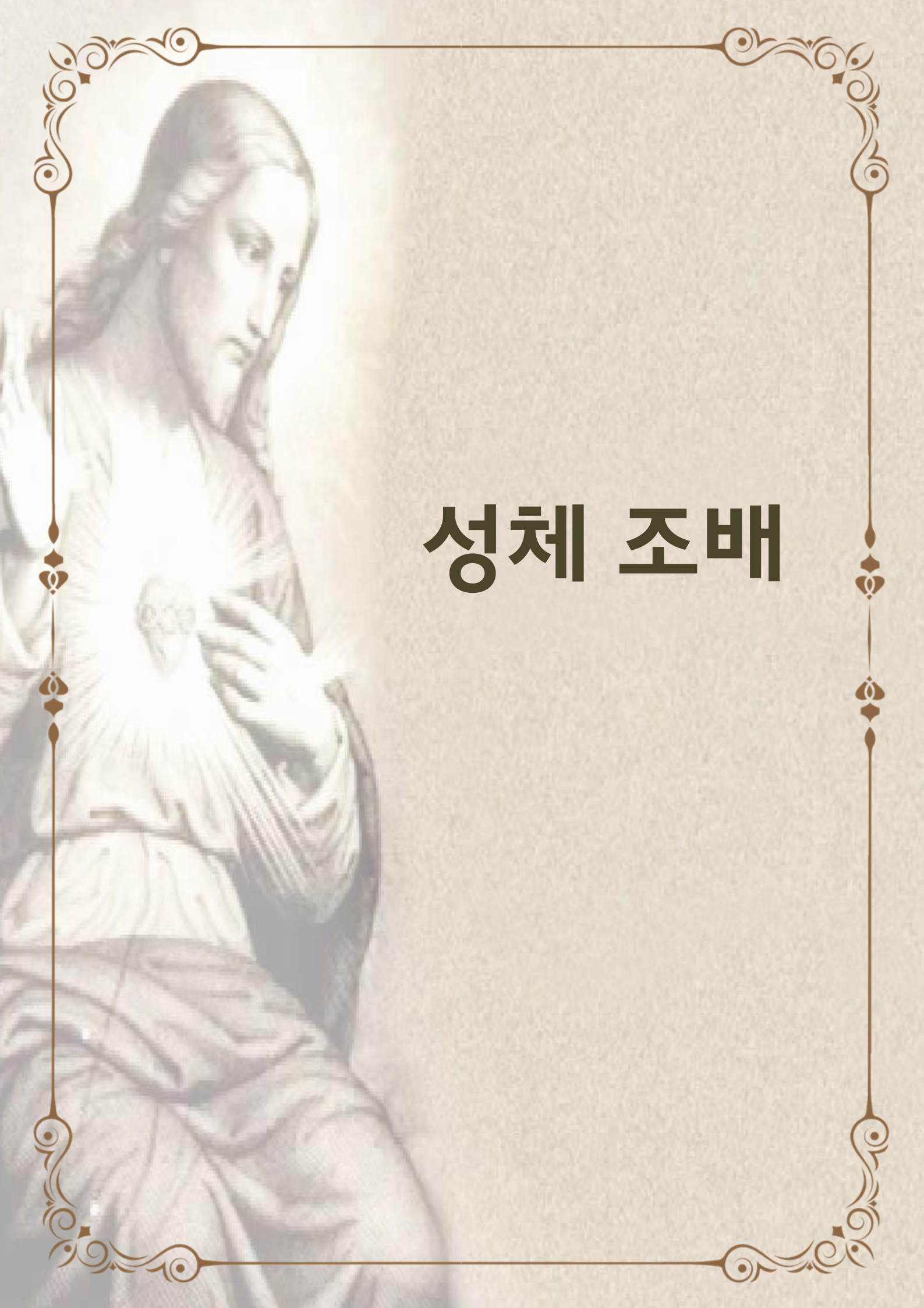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x2)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x2)

내 형제 벗들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주도다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x2)



성체 조배

199. 예수 마음

예수 마음 겸손하신 자여
내 마음을 내 마음을

1. 열절케 하사 네 성심과 네 성심과 같게 하소서
2. 잡아 당기사 네 성심에 네 성심에 결합하소서
3. 차지하시와 네 성심에 네 성심에 보존하소서
4. 변화케 하사 네 성심과 네 성심과 바꿔주소서



성체조배 시작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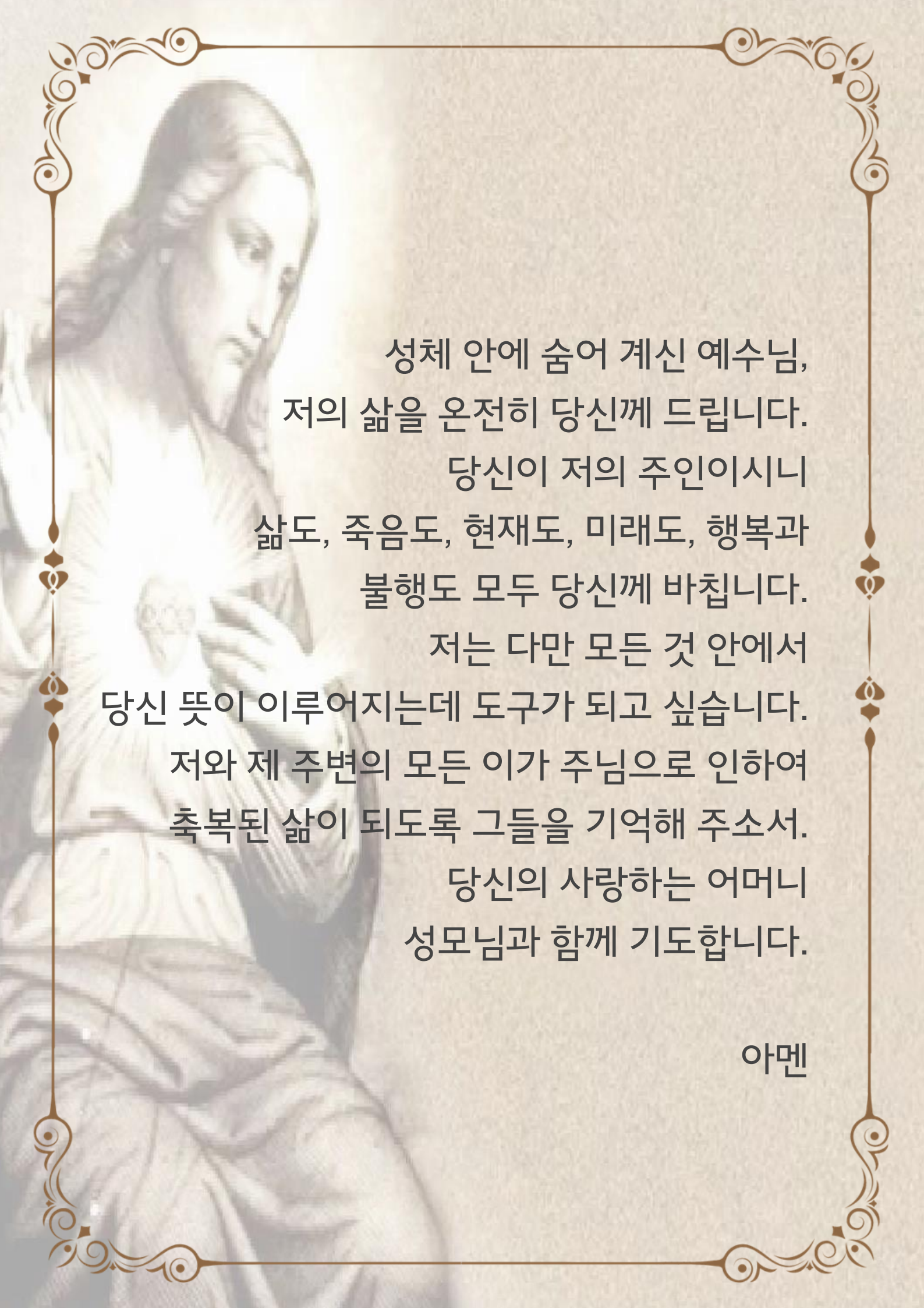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당신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단순함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당신께 나왔습니다.

아기가 그의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기쁨과 슬픔, 즉 모든 것을 함께 하듯이
당신과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저를 당신
자신으로 변형시켜 주소서.

이것이 제가 매일 받는 영성체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저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니
삶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당신께 바칩니다.

저는 다만 모든 것 안에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모든 이가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삶이 되도록 그들을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성체조배 마침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봉헌하나이다.

●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 예수님, 저희가 하는 일에 강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강복 전 기도

+ 주 우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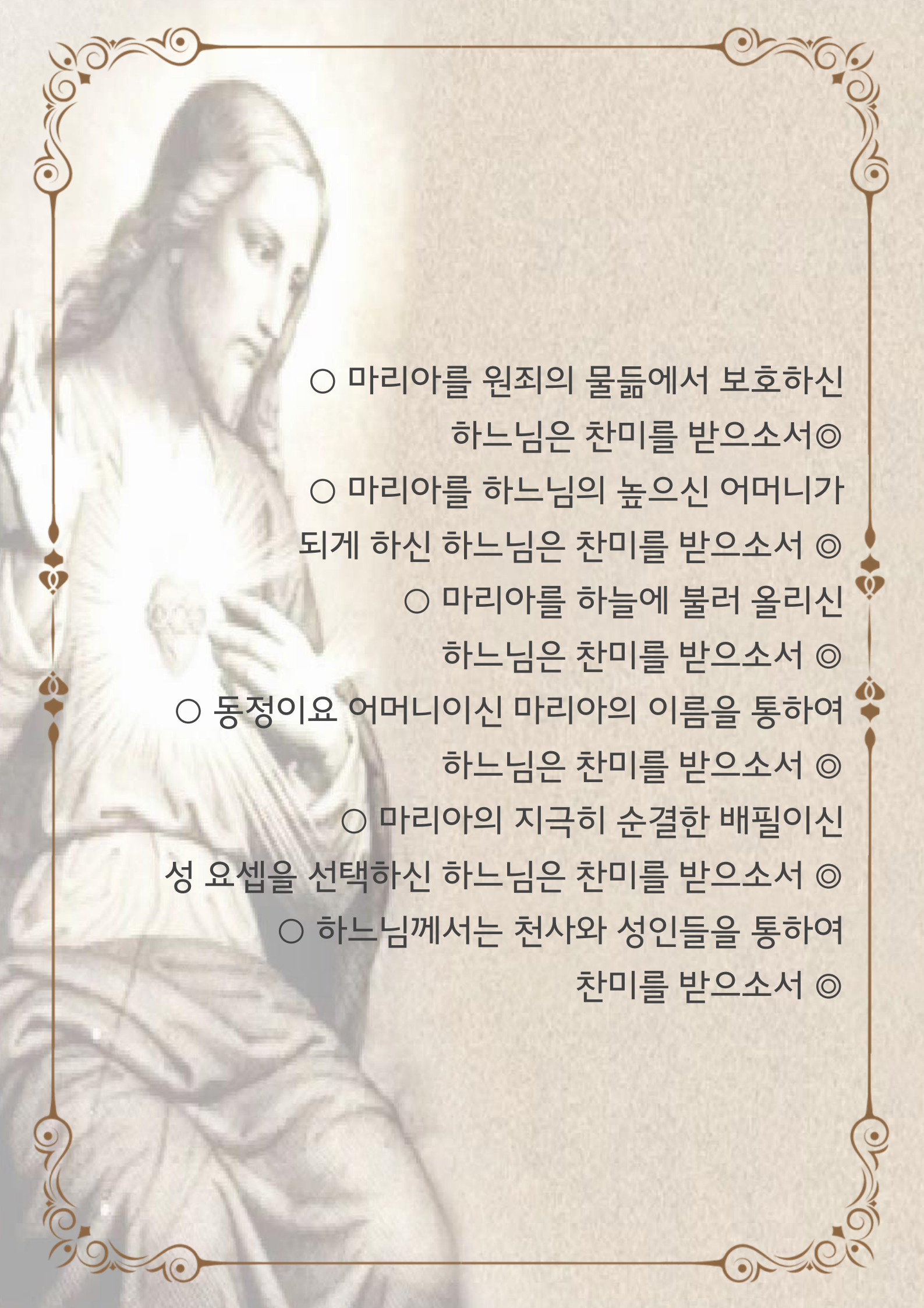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 찬미경

-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지극히 거룩한 예수성심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를 받으소서 ◎
-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위로자이신 빠라끌리또 성령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마리아를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마리아를 하느님의 높으신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동정이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배필이신
성 요셉을 선택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하느님께서서는 천사와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



마침성가

마니피캇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마음 언제나 설레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만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주께서 나의 신세를 돌보셨음이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돌보셨음이리로다

공지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 **일시: 5월 20일(월) 오전 7시 출발**
- **집결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정문**
- **내용: 소록도 성지순례**
- **회비: 6만 5천원 (점심&저녁)**
- **입금: 국민은행(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794001-04-122952**
- **신청: 02)6253-3373, 010-8360-3700**

※ 입금 후 문자 발송 부탁드립니다.